

갈대꽃으로 수놓은 순천만 제23회 순천만 갈대축제 개최

‘세계유산 순천만, 갈대의 빛으로 풍년을 밝히다’ 주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순천만습지·순천만 인근 일원

순천시는 오는 11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순천만습지와 순천만 인근지역 일원에서 ‘제23회 순천만 갈대축제’를 개최한다. ‘세계유산 순천만, 갈대의 빛으로 풍년을 밝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사)순천만생태관광협의회의 주관으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민간 주도의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축제는 순천만 인근 지역 농·어민의 풍년을 기원하고 주민 화합을 다지는 전통 세시풍속을 재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날 오전에는 대대마을 안길에서 마을 주민들이 지신밟기를 하며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지신밟기가 끝나면, 대대들판에서부터 선착장을 거쳐 순천만습지 잔디광장까지 대

마을 용출다리길 행진 및 풍물패 놀이가 이어진다. 이번 용출다리길 식전 퍼포먼스는 지난 해와 달리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도사초, 인안초 학생 약 200여 명이 함께 행진하고, 줄다리기도 직접 참여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개막식은 오후 2시부터 시작된다. 개회사, 축사와 함께 인안초등학교 학생들의 합창 및 스포트라노 차유클의 개막 공연이 이어지고, 이후에도 소리골 남도의 풍물공연, 도은영 대금 연주, 허윤정 밴드 등 다채로운 공연들이 준비되어있다. 둘째 날은 오후 3시부터 해룡면 와은 마을 선착장 일원에서 풍어제가 열린다. 풍어제는 올해 축제에서 처음 개최하는 프로그램으로, 전통적으로 어업에 의지해서 살아온 와은 마

을 주민들이 바다와 더불어 살아온 조상들을 기리고 풍요를 기원하며 바다에 제를 지내는 행사다. 선착장에서 긴나발, 굿소리와 춤으로 용왕맞이부터 시작해 와은 마을 특산 요리인 꼬막 요리를 진설(陳設)하고, 제례 후에는 종패를 바다에 뿌리며 풍어를 기원한다. 일몰쯤에는 참여자들이 모두 모여 달집태우기를 하며 소원을 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순천만에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특히 5, 6일에는 조류 전문가와 함께 흑두루미 월동지를 탐조하는 흑두루미 탐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프로그램 참가 희망자는 전화(061-741-1991) 또는 온라인(<https://naver.me/xqoWszUn>)으로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또한 축제 기간 동안 순천만습지 잔디공원에서 흑두루미 숲대 만들기, 자연물 만들기 등 생태 체험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체험 부스가 운영되고, 시간대별로 가을과 어울리는 버스킹 공연이 진행된다. 아울러 순천만 자연생



태관 1층 실내에서는 흑두루미 및 인근 주민의 삶을 보여주는 사진전이 열린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축제에 용출다리길과 풍어제 등 전통 세시풍속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는 만큼 순천만 보전의 역사와 함께한

주민들의 풍요를 기원하고, 관광객들도 순천만 가을의 맛어진 풍경과 풍성한 축제를 즐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기자



광양시,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유치 확정

전국 최대 면적 산모실(40~53㎡)은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총사업비 126억 원(도비 40억, 시비 60억, 민자 26억)을 투입해 2024년 개원을 계획하고 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중마동 미래여성의원 인근 부지에 건립되며, 지상 4층 연면적 2,409㎡ 규모로 조성된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민선 8기에 들어 사각지대가 없는 ‘눈물 없는 사회 조성’을 목표로 태아의 건강검진부터 노년의 치매 예방과 치료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 구축’을 약속했다. 정흥기 보건소장은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 광양에 차별화된 고품격 전국 최고의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모성 보호와 저출생 문제 해소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현근기자

제4회 고흥군수배 녹동항 전국 바다낚시대회 개최



고흥군은 지난 10월 30일 도양읍 소록도 방파제 등 3개소에서 ‘제4회 고흥군수배 녹동항 전국 바다낚시대회’를 개최했다. 고흥군이 해양레저 관광지임을 전국에 알리고자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총 147명의 전국 낚시인들이 참가했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녹동항 인근 세 개의 방파제 중 한 곳을 낚시장으로 지정받아 열린 경기를 펼쳤다. 고흥=기동취재본부

이날 대회 순위는 지정 대상어종인 감성돔의 크기가 큰 순서대로 결정되어 1위는 김갑수(고흥군) 씨가 46cm를 기록해 상금 500만 원과 상장을 받았고, 2위는 홍기욱(남원시, 41.5cm) 씨와 3위 박근희(고흥군, 30.6cm)씨가 각각 상장과 상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받았다. 이외에도 최대상(우럭 37cm, 강기능), 여성 winner상(김순덕, 이옥순) 최고령자상(만70세, 장길용) 최장거리상(이창식, 350.7km) 최연소상(만23세, 박지혁) 등의 특별상도 수여됐다. 공영민 군수는 “이번 낚시대회를 통해 고흥을 더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며 “단 한건의 안전사고 없이 대회를 마무리해 감사하며, 고흥군이 해양관광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심벌-캐릭터 ‘다섬이’ 확정

여수시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심벌과 캐릭터 등 EI(Event Identity)를 최종 확정했다고 10월31일 밝혔다. 심벌은 섬의 다양한 해양환경과 생태계, 그리고 섬과 섬의 연결로 국가 간 협력과 연결을 나타내며,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캐릭터는 섬들의 염원을 담아 태어났다는 설정과 함께 전 세계 섬들을 탐험하며 모든 기록을 섬박람회를 통해 알리는 탐험가라는 스토리를 담고 있다. 특히 ‘다섬이’라는 캐릭터 이름은 여수가 간직한 365개 많은 섬의 아름다움을 나타낸다는 뜻으로,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응모작 중 전문가 심사사과 대국민·시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여수=김현근기자

보성군, 찾아가는 농업기계 안전교육 추진

보성군은 안전한 농업기계 사용을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23일 사이 12개 읍면을 찾아 지역농업인 170여 명을 대상으로 농기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농기계 종류별 사고 발생률은 경운기(41.7%), 트랙터(19.1%), 관리기(6.7%), 예초기(6.0%) 등의 순으로 주로 논·밭에서 작업이나 이동 중 발생한다. 이번 안전교육은 각 읍면에서 농기계 이용률이 높은 마을을 대표로 선정해 농기계 사고

예방 이론교육과 소형농기계 자가 정비 실습 교육 중심으로 진행된다. 소형농기계 부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준비하며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각 읍면농민상담소를 통해 현장 참여가 가능하다. 첫 교육은 11월 1일 미력면 반룡리 가평마을에서 시작되며,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 농민상담소로 문의하면 된다. 보성=기동취재본부

내 삶이 행복한 광산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